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제178호【루계 제24591호】주체103(2014)년 6월 27일 (금요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변인선동지, 박정천동지, 홍영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온 나라가 강성국가의 지평을 향하여 새로운 조선속도로 폭풍쳐 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짧은 기간안에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술유도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드디여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하는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장 로동계급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앙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의 전술기술적제원을 료해하시고 시험발사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술유도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것이 실증되였다.

시험발사에서 경이적인 결과를 달성한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장 로동계급은 우리 식의 최첨단화력타격수단을 개발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순간이라도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 믿음을 안겨주시여 오늘의 자랑찬 승리를 안아오도록 이끌어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흘러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초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는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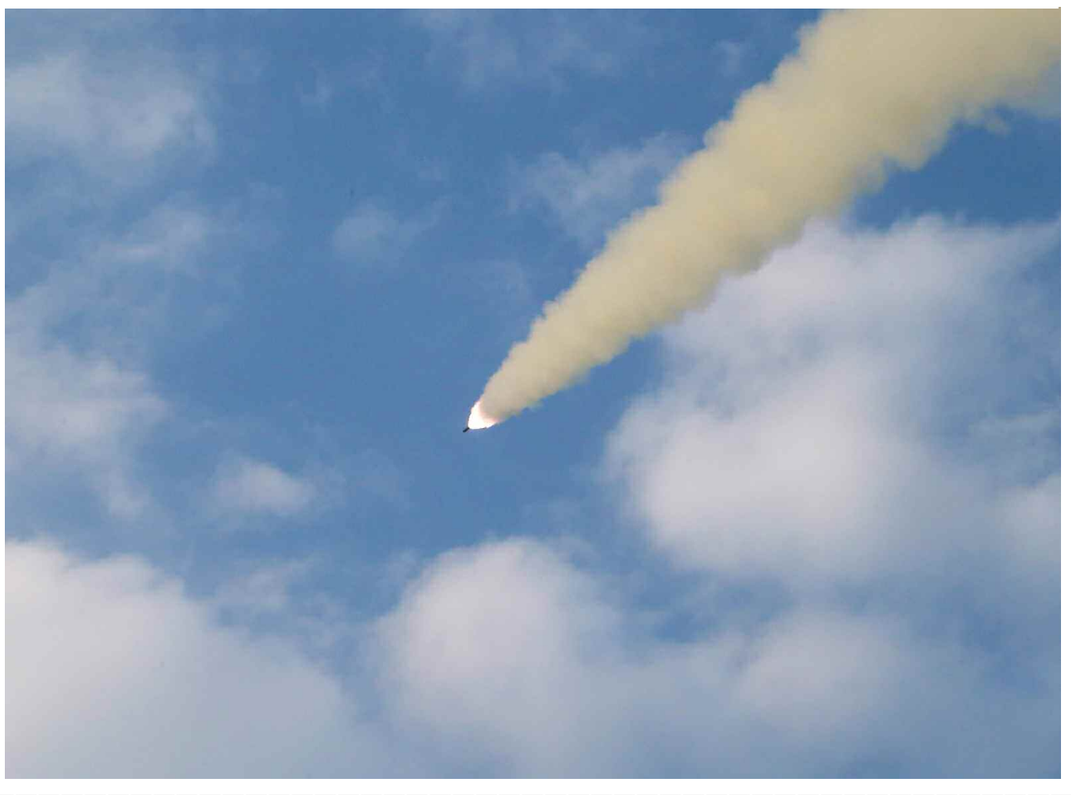
우리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 극악무도한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통쾌하게 진행된 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이룩한 사변적인 쾌승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가까이에 있건 지구상 한쪽끝에 있건,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마음먹고 골라가며 타격할수 있는 우리의 초정밀화된 여러가지 화력타격수단의 소멸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시험발사결과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를 잊지 말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할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김 정 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을 위한 력사의 장거

왕 재 산 혁 명 사 적 지 를 찾 아 서 (2)

우리가 왕재산혁명사적지를 찾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게 된다는 기쁨으로 여기 최북단의 온성땅도 끝없는 환희로 들끓고있던 때였다. 언제 봐야 군의 첫 새벽을 먼저 맞군 하는 책임일군들로부터 강의수준을 높이기 위해 남모르게 애를 쓰는 왕재산혁명박물관의 나어린 처녀강사에 이르기까지, 백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으로 말아 어엿하게 키워가는 선군시대 모성영웅만이 아니라 최우등의 자랑을 안고있는 소년단원들도 군안의 그 누구나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었다.

온성사람들이 류다른 감흥속에 6월 19일을 기다린것은 여기가 항일무장투쟁시기 첫 국내당조직이 태여난 고장이기때문만이 결코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 진행하신 지방당사업에 대한 현지지도자욱이 소중히 아로새겨져있는 곳이 바로 여기 온성군당위원회이다. 더우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고 활발하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을 마련하시기 위해 정력적인 헌신의 자욱을 수놓으신 영광의 땅이 다름아닌 조국의 최북단 온성군의 왕재산리인것이다.

왕재산대기념비의 건립,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천재적인 예지와 불멸의 혁명령도로 이룩하신 력사적장거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는 나라와 민족의 만년재보로서 인민대중을 수령이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교양하는데서 가장 큰 감화력을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대기념비 위치를 정해주신 장소에서 우리와 만난 왕재산리의 김종철동무는 왕재산회의와 왕재산대기념비 그리고 제2청산리로 불리우는 왕재산리야말로 왕재산의 3대자랑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고장 자랑을 무척 하는것이였다. 척 보기에는 수수한 농장원같아도 자기 고장, 자기 단위에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손금보듯이 꿰들고있을뿐아니라 하나라도 더 소개하기 위해 마음을 쓰는 그가 무척 돋보였다.

우리는 정미순 왕재산혁명박물관 교양과장의 해설을 들으며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왕재산대기념비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왕재산을 배경으로 서게 된 사연에 대해 알려주면서 대기념비건설과정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 장군님처럼 고결한 충정과 천재적인 예지, 비상한 조직적수완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특출한 정치가, 걸출한 위인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던 1970년대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전면에 나섰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게 판심을 돌리신 문제의 하나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이였다.

이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만수대언덕에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대기념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련이어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이 수많이 깃든 조국의 최북단 왕재산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혁명사적지를 꾸릴것을 발기하시였다. 그리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무어주시고 설비와 자재보장대책, 정연한 건설지휘체계도 세워주시였으며 모든 도들과 중앙기관들에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던 주체63(197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친히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대기념비건설의 기본원칙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그 위치까지 바로잡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는 답사자들, 참관자들과 함께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혁명사적지를 훌륭히 꾸리기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되였다.

주체64(1975)년 3월 어느날 두번째로 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진눈깨비에 얼어붙은 미끄러운 모형대돌우에까지 몸소 오르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가장 정중히 모실 위치를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친히 왕재산마루의 회의장소에까지 오르시여 답사생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으신 조국진출로정대로 답사를 하도록 그 로정까지 정해주시였고 수령님께서 항일의 날에 걸으신 조국진군의 길을 이어 우리 함께 걸어내려가자고 하시며 가파로운 산길을 앞장에서 헤치신 그이의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그날의 사연깊은 로정을 따라 왕재산대기념비앞에 다시 이르렀을 때 교양과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대돌에 새겨진 1975년 10월 13일이라는 글발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번째로 왕재산을 찾으시였던 날이라고, 이날 그이께서 손수 동상제막포를 벗기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제막하여주시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재산대기념비건설을 위해 세차례나 자기네 온성군을 찾으시였던 우리 장군님이시였지만 그때마다 지척인 회령땅에만은 한번도 들려보시지 못하였다고 못내 가슴아파하는것이였다. 누구나 치미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왕재산대기념비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으면 그 나날 세차례나 온성땅을 찾으시면서도 김정숙어머님의 고향 회령에 한번도 들려보시지 못하시였으랴.

문득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주체90(2001)년 7월 어느날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별렬차로 두만강철다리를 넘으실 때 사색깊은 눈길로 출렁이는 두만강을 바라보시며 김정숙어머님의 고향 회령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도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회령에 가보고싶었지만 일감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언제인가 왕재산혁명사적지건설을 지도하러 온성에 갔을 때에도 시간이 없어 회령에 들려보지 못하였는데 그때 회령을 지나면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고, 그때의 일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다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고향에 잠간 들리시는것마저도 뒤로 미루시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해 왕재산에로의 현지지도길을 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

참으로 왕재산혁명사적지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고 빛나게 계승되는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력사의 산 증견자인것이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는 자기의 근본이 있고 혈통이 있다. 혁명이 자기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자면 뿌리로 되는 바탕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

왕재산을 내리는 길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8돐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안으시고 삼지연으로, 마두산으로 향하시였던 그 걸음을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억세게 이어갈 핵심골간들이 육성되는 만경대혁명학원에로 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혁명이 년대를 이어가며 순결하게 고수하는 백두의 혁명전통, 이 줄기찬 피줄기, 주체의 혈통이야말로 강성국가건설에 활력을 부어주는 삶과 투쟁의 원줄기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더없이 귀중한 교범이다.

항일혈전사를 책에서 배운 세대들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주인공, 주력군을 이룬 오늘의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그 진리성과 의의가 더더욱 부각되는 백두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만년담보인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듯 왕재산하늘가에 저녁노을이 붉게 비끼였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천재적인 예지, 고결한 충정

바로잡아주신 기념비위치

주체63(1974)년 5월 중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대기념비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시 왕재산대기념비기초공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왕재산회의를 진행하신 왕재산이 아니라 그 옆봉우리인 장덕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정형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왕재산대기념비는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력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장소가 있는 왕재산의 중턱에 세워야 하며 왕재산대기념비를 왕재산옆 봉우리에 세우면 사람들이 그곳을 왕재산으로 잘못 생각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였다.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있는 일군들에게 기념비건설에서 기본원칙은 기념비를 사적지에 접근시키는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왕재산대기념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력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장소가 있는 왕재산의 중턱에 웅장한 모습으로 건립되였다.

가장 숭엄하고 정중하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대기념비건설장을 두번째로 찾으신것은 주체64(1975)년 3월 중순이였다.

건설현장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와 높이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동상에 탑의 그늘이 질수 있다는것과 동상이 탑과 너무 가까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 동상대돌을 더 높여야 하며 수령님의 동상을 앞으로 내다모셔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여간만 미끄럽지 않은 모형대돌우에까지 오르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 건설에서 수령님의 동상위치를 바로 정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오늘과 같이 왕재산대기념비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훌륭하게 모실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고결한 충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완공의 날에 바치신 헌신과 로고

주체64(1975)년 10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온성에 오시여 곧바로 왕재산대기념비로 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혁명박물관에 도착하신 때는 해질무렵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몸소 제막해주신데 이어 대기념비를 오랜 시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으며 나라의 최북단을 비롯하여 군안의 여러곳에 꾸려진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과 국경관문 남양을 현지지도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박물관에서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진렬실의 벽면과 바닥에 전시된 수천점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시였다. 그 과정에 박물관에는 과학적인 자료를 많이 전시하여 당시의 혁명투쟁력사를 자료적으로 론증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고 구체적인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왕재산혁명박물관 일군들과 강사들의 한결같은 절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여 은정깊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곳을 떠나신 때는 사위가 어둠속에 깊숙이 잠긴 시간이였다.

본사기자

◎ 왕재산대기념비가 전하는 혁명사적물 ◎

사연깊은 모형사판

사진에 있는 모형사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왕재산대기념비건설의 나날에 보아주신 뜻깊은 혁명사적물이다.

주체64(1975)년 3월 어느날 또다시 왕재산대기념비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양마당 중심에 놓여있는 이 모형사판을 보아주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도록 설계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래의 틀과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설계일군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탑과 가깝게 모실것으로 예견하고있었다.

사판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모형대돌우에까지 올라가보기도 하시며 대기념비의 전반적구도를 검토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이미 세워진 탑과의 호상비례관계설정에서의 근본적인 약점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터져오르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충정의 손길어린 제막포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공을 앞둔 왕재산대기념비를 찾으시였던 주체64(1975)년 10월 13일은 류달리 쾌청했다.

교양마당에 서시여 대기념비의 전경과 두만강기슭에 펼쳐진 온성벌을 비롯하여 사적지주변을 이윽토록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여 제막포에 싸인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마주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숭엄한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제막포를 정중히 벗기시였다.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이윽토록 우러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동상을 잘 모셨다고, 아주 잘 모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손수 제막끈을 당겨 동상제막포까지 벗겨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이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머리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 영 민

온성지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왕재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평 안 남 도, 함 경 남 도, 량 강 도 군 중 대 회 진 행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함경남도, 량강도군중대회가 26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또다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대회들에는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강형봉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산탄광 지배인 리세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숙천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최영송,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사범대학 학생 박준혁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64년전 신성한 조국강토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으며 또다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원쑤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한 준엄한 혁명전쟁이였다고 하면서 미제가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감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야수들이 안주시와 덕천시, 순천시, 평원군, 증산군, 북창군 등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차별적인 폭격과 살륙만행을 감행하여 38만 7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을뿐아니라 33만여동의 건물 그리고 수십만정보의 농경지와 산림을 파괴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연설자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고 강조하였다.

미제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도 새 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년숙적 미제침략자들과 피뢰패당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며 평남땅을 수령결사옹위의 요새로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석탄과 전력, 비료, 세멘트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리선봉,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함흥의학대학 학생 백승호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야만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도에서만도 무려 11만 5 3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8만 4 000여동의 건물과 살림집들을 불태웠다고 말하였다.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석탄과 전력, 비료, 세멘트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함경남도군중대회에서는 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자 리선봉,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함흥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함흥의학대학 학생 백승호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고있다고 말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야만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도에서만도 무려 11만 5 3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18만 4 000여동의 건물과 살림집들을 불태웠다고 말하였다.

전쟁초기에 벌써 수많은 공중비적들이 달려들어 창조의 동음,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던 도의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재더미로 만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침략자, 살인자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매여달리는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최후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억세게 틀어잡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것으로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며 남새와 과일, 버섯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중요대상건설을 불이 번쩍나게 다그치며 거리와 마을, 공원, 유원지들을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함흥지구 화학공장들과 검덕, 단천지구의 공장, 광산들, 수동, 금야지구의 탄광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들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인민소비품들이 쏟아지게 하며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3면으로 계속

함 경 남 도 군 중 대 회 진 행

성강의 봉화는 오늘도 거세차게 타오른다

《강철로 당을 받들자!》는 신념의 구호높이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며 앞으로도 이 빛나는 투쟁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성강!

우리 조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올랐던 력사의 땅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치솟고있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성강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 나가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도 선구자의 봉화, 애국충정의 불길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당중앙결사옹위의 강철성새

강철로 당을 받들자!

더 진하게 붉어진 신념이고 다시한번 억세여진 의지이다.

우리 당에 조국수호의 무쇠마치가 필요할 때면 멸적의 쇠물폭포로 화답해나서고 조국번영의 강철기둥이 요구될 때면 증산의 불보라로 온 나라를 끓게 한 성강의 로동계급!

전화의 나날 굴함없이 쇠물을 부어내던 그 기질로, 고난의 시기 온 나라를 불러일으키는 불길이 되던 그 본때로 성강은 당중앙결사옹위의 생산돌격전의 전렬에 섰다.

지난해에 비해 훨씬 더 높이 내세운 강철생산목표!

현실적조건만을 따져본다면 불가능이라는 답밖에 찾을수 없는 실로 헐치 않은 수자이다. 허나 무조건성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성강사람들은 배가의 힘으로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고있다.

일군들의 일본새가 달라졌고 생산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들끓는 생산현장이 그대로 일군들의 사무실이고 총화장소이다. 생산활성화를 위한 방도를 토의하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눈빛은 심각하다. 화약내질은 전호가에서 전투총화도 하고 돌격을 앞두고 맹세모임도 가지는 분위기이다. 한회, 두회 늘어나는 출강차지수에도, 날마다 올라가는 강철생산량에도 이들은 만족을 모른다.

나는 오늘 강철로 당을 받들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가?

생산자들은 이 량심의 물음앞에 스스로 자신들을 세우고 하루일의 성과보다 부족점을 먼저 돌이켜보고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많은 일감을 어깨우에 메고나서지 못한 일군들의 자책으로, 걸린 고리들을 즉시에 풀기 위해 내달리는 일군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성강의 주체철생산량은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그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1.5배계선을 넘어섰다. 북방의 미더운 강철전사들은 1.4분기 주체철생산계획을 수행하였고 2.4분기의 결승선도 눈앞에 두었다.

탄탄대로가 아니다. 생산을 계속하는가 마는가 하는 갈림길도 있었다. 지난 3월말 2호회전로내부의 어느 한 부위에서 벽돌들이 탈락되는 긴급정황이 발생하였다. 로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며칠, 그 며칠을 기다려 로를 보수하는데는 또 이틀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 목숨을 바칠지언정 회전로는 세울수 없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글거리는 로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 고열로 숨이 꺽꺽 막혔고 피부는 타들어가는것 같았다. 신발바닥이 회전로바닥에 녹아붙어 한걸음, 한걸음이 힘겨웠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에 보수작업을 끝내고야 말았다.

불은 쇠를 녹인다. 하지만 그보다 몇갑절 더 뜨거운 심장의 열로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성강의 강철전사들이다.

성강의 구내길을 보라. 강철생산에서 부족되는 원료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여다니는 성강사람들의 노력을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느낄수 있다. 일군이건 로동자이건 하루에 몇차례씩 수집하고있는 파철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떨쳐나 너도나도 파철을 싣고 기업소정문으로 들어서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사생결단이라는 말을 또 한번 음미하게 된다.

고난의 시기 아침마다 손수레에 파철을 싣고 기업소정문으로 들어서던 종업원들이며 녀인들과 로인들, 땅우에 없으면 땅속을 파헤치고 땅속에 없으면 바다물속을 헤치며 전기로에 넣을 파철을 한덩이, 한덩이 마련하던 성강사람들, 숨죽어가던 대야금기지에서 온 나라를 격동시키며 기적같은 불길을 일으키던 그날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있다.

어찌하여 성강의 녀인들은 매일같이 련합기업소구내에 자신들의 발자국을 찍어가는것이며 남편들의 일터마다에서 기대들을 닦고 또 닦으며 그리도 정성을 기울이는것인가.

그들은 제 집 밥가마보다 조국의 쇠물가마를 더 귀중히 여기는 녀인들이다. 조국이 부르는 길에서는 한없이 고지식하고 오직 《강철로 당을 받들자!》는 신념의 구호에 자신들을 따라세우며 달리고 또 달리는 애국자들이다.

성강의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는 1, 3강철직장의 전기로들과 천정기중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은 어떻게 되여 하나하나 새것과 다름없이 보수되고있는가. 1강철직장의 생산량이 1.5배로 뛰여오르고 3강철직장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물질기술적담보가 확고해지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1만5천㎥산소분리기와 6천㎥산소분리기의 가동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대책들은 또 어떻게 하나하나 빈틈없이 세워지고있는가.

— 일군들부터 뛰자!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생산자대중의 심장속으로 들어간 당일군들, 현장에서 생산지휘를 하고 때로는 침식도 잊어가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가는 행정일군들…

그들에게는 밤도 없고 휴식일, 명절도 따로 없다. 자신들의 량심에 스스로 내린 명령이다. 일군들의 사업에서 한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생산실천에서 10시간, 20시간의 공백이 난다는것이 이들의 립장이다.

아들에게 식사를 날라다주며 잠시라도 쉬고 일하라고 말했다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어느 한 일군은 말하였다.

《이 밤에도 수많은 로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마땅히 지휘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따라 앞으로, 이것은 손에 총을 들고 병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내달리는 화선지휘관의 돌격구령이다.

지금 이 시각도 성강의 제1선참호에는 이런 화선지휘관들이 서있다. 그들은 일군이기 전에 생산자이고 생산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어머니와도 같다. 생산수자뿐이 아니라 종업원들의 집주소가 적힌 수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피는 눈빛, 병원에 입원한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완쾌된 몸으로 다시 초소에 서도록 하기 위해 끼마다 별식을 마련해가지고 쉼없이 오가는 발길…

— 종업원들의 생활을 한두번의 낯내기로가 아니라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책임지자.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이런 립장에서 뛰고있으며 초급일군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고있다. 종업원들호상간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은 생활의 공기가 되여 흐르고있다.

쇠물집, 성강사람들 누구나 이 말을 입버릇처럼 외운다. 성강은 사회주의대지에 터전을 닦고 집단주의를 기둥으로 하여 한모습, 한심장으로 굳건히 뭉쳐나가는 강철로동계급의 대가정이다. 조국이라는 거목을 강철로 떠받드는 뿌리가 되기 위해 피와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기울여가는 수많은 혁신자, 위훈자들이 바로 성강에 있다.

하루일을 마친 후이면 이곳 로동계급이 너나없이 모여드는 각 직장의 회의실들에서는 전시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내용이 수록된 어느 한 기록영화가 련일 상영되고있다. 이제는 수십차례나 본 영화여서 매 장면들이 모두의 머리속에 사진처럼 새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또 영화를 보고있다.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미더운 주인공들과 끊임없이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정신력을 신념과 의지의 자양분으로 새겨안고있다.

원쑤들은 왜 성강의 강재더미가 높아지는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그 강재더미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충직한 선군혁명동지로 살며 투쟁하는 성강사람들, 그들의 정신력이 쌓고쌓는 당중앙결사옹위의 강철성새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성강의 봉화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것을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오르는 비약의 불길이다.

새로운 강판생산에서의 성공, 보다 과학적으로 완비된 주체철생산공정, 현대적인 내화물생산기지 건설, 여러 가열로들에 고온공기연소기술 도입…

소문없이 이룩된 큼직큼직한 성과들은 성강의 봉화가 오늘도 어떻게 타번지고있는가를 시대앞에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던 그 나날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철로 결사옹위하자!

이런 불타는 맹세는 성강사람들로 하여금 당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새로운 강판문제도 자기들의 몫으로 여기고 스스로 말아나서게 하였다.

새로운 강판생산문제가 처음 제기되였을 때 성강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던가.

공정을 새로 꾸리는데 요구되는 시간은 1년이상, 수십대에 달하는 현존설비를 개조하자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했다.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성강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아니다!

그들은 이 단마디로 두 방안을 다 부정해버렸다.

혁명의 온갖 원쑤들과 판가리결사전을 벌리고있는 오늘 성강의 1분1초는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천금같은 1분1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강성국가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칼을 물고 막아나서는 원쑤들을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솟고 주먹이 떨리는 이들이였다.

현재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결합, 성강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유일한 출로를 찾았다.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택한 신념의 길, 계속혁명의 그 길에서 이들은 자그마한 편차나 순간의 답보도 몰랐다.

여러차례에 걸치는 시험생산과정에 극복방도를 찾아내고 끝끝내 새로운 강판생산에서 성공하게 되였을 때 이들모두는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우러러, 당중앙을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였다.

주체철생산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성강의 기술집단은 쇠물의 량과 질을 동시에 더욱 높일수 있으며 우리 식의 보다 발전적인 생산체계를 얼마든지 확립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또 하나의 격전이 벌어졌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주체철생산의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기술발전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다. 성강과 련관부문, 련관단위의 과학기술력량이 총동원되여 주체철생산공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설계에 달라붙었다.

탐구의 나날은 소리없이 흘러갔다. 그러나 긴장하게 이어진 그 순간순간과 함께 성강의 장래를 결정하는 심각한 전투는 계속되였다. 점과 선, 수자 하나하나에 성강의 래일이 비낀다는 책임감을 안고 그들은 피타게 그렸던 도면을 스스로 부정하며 《다시!》, 《또다시!》 이렇게 자신들을 부단히 채찍질하였다.

산소용융로의 높이를 1m이상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한 콤퓨터모의시험은 얼마였고 산소주입공정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지새운 밤은 또 그 얼마였던가. 정련직장에서는 정련로의 제강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단축하여 제철, 제강, 출강공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맞물리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은 과학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착상의 실마리도 틔겨주었고 설계도면을 들여다보며 자기들의 소박한 의견도 기탄없이 터놓았다. 과학적인 리론과 오랜 현장경험과의 결합, 그것은 복잡하게 얽혔던 매듭들이 하나둘 풀려나간 과정이기도 하였다.

새것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이런 불같은 의지는 새로운 내화물생산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장에도 차넘쳤다.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낡은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바꾸기 위한 사업만이 아니였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또 한번 기술적진보의 큰걸음을 내짚기 위한 투쟁이였다.

과학적인 타산과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흐름식생산공정이 설계되고 종전보다 능력이 큰 설비들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번듯하게 꾸려진 건물에서 몇명안되는 인원으로 생산을 진행하면서도 내화물의 수명을 종전에 비해 훨씬 늘이게 되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일에서나 만족을 모르고 쉬임없이 내달리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그대로 느낄수 있게 하여준다.

덩지큰 여러개의 가스발생로와 주변장치들의 설치, 가열로들의 개조…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여러 가열로들앞에 서면 짧은 기간에 이렇듯 방대한 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온 성강사람들의 창조본때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지금은 간고했던 투쟁의 흔적을 볼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유훈인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위해 이들이 내달리고있는 하루하루를, 그 길에서 발휘하고있는 일본새를 가슴벅찬 현실로 느껴본다.

그들은 성강땅을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 특히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의 첫번째 고지라고 생각하고있다. 최고사령부의 불빛과 성강의 충천하는 화광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여기며 붉은 쇠물을 뽑고 또 뽑고있다.

1강철직장의 생산현장에 서면 전기로마다에서 시뻘건 쇠물이 용암마냥 펄펄 끓고 멸적의 불보라가 뿌려지는 광경을 가슴후련히 볼수 있다.

바람세찬 바다가에 나가면 훌륭히 꾸려놓은 지철장에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소철과 분철 등을 생산하여 강철생산현장에 계속 보내주는 현실을 목격할수 있으며 주체철직장에 가면 현대적으로 일떠선 4호회전로의 우렁찬 동음을 들을수 있다.

새로운 강판이 생산되여나오는 현장에 서면 속이 후련해지고 《원쑤놈들 보란듯이!》라는 통쾌한 웨침이 절로 터져나온다.

성강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한적한 물소리만 울리던 깊은 산중에 덩지큰 여러개의 발전소를 련이어 건설한것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솔길밖에 없던 산속의 수십리구간에 번듯하게 닦아진 도로를 따라 차를 달리느라면 이 나라 북변에서 조국의 지도우에 소문없이 뚜렷한 흔적을 남긴 성강사람들의 애국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성강3호청년발전소가까이에는 한꺼번에 15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가족휴양소가 한폭의 그림처럼 들어앉았다. 서로 한데 어울려 풍성한 식탁도 마주하고 배구와 롱구, 탁구경기로 떠들썩하게 웃음꽃도 피우는 련합기업소의 혁신자들과 가족들의 모습에서 나날이 아름다와지는 성강풍경을 엿볼수 있다. 해마다 수백t의 오리고기를 생산하여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으로 이미 온 나라에 잘 알려진 성강이 올해에는 물고기잡이에서도 소문을 내고있다. 련합기업소 수산직장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종업원들의 집집에 가닿고있다. 년산 수백t 능력의 버섯공장도 완공을 눈앞에 두었다고 하니 머지않아 성강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고결한 충정, 모진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강의한 의지, 무슨 일이든 달라붙으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실천력, 바로 이것이 성강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정신적특질이다. 이러한 기질과 본때를 성강사람들은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진군길에서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조선의 강철기둥이 어떻게 솟구치고있는가를 여기 성강에 와보면 알수 있다. 이 나라 로동계급이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1분1초를 어떻게 이어가고있는가를 성강의 쇠물이 말해주고있다. 10년이 흐르든 100년이 흐르든 변함없이 당과 수령에게 충직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충정의 세계를 성강의 봉화는 시대와 력사앞에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진수
본사기자 김충성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남은것은 오직 하나 기다리고있는 최고사령부의 타격명령뿐이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

오늘 26일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아무러한 사전통보도 없이 연평도주변해상에서 우리측 수역을 향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무모한 군사적도발은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대한 고의적인 선불질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북침흉계의 로골적인 발로이다.

최근 조선서해 열점수역에서의 사태발전이 이 모든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어선단속을 구실로 감행되는 괴뢰군함정들의 우리측 령해침범행위는 날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확대되고있으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광란적인 총포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관하 모든 타격집단들은 완전한 보복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타격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

우리는 가뜩이나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선불질이 괴뢰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련관되여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지금 안팎으로 헤여나올수 없는 최악의 《국정》위기에 빠져 운명의 벼랑끝에 내몰려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은 예민한 열점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 정세를 폭발전야로 몰아가는것으로 최후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우리 서남전선군 전체 장병들은 쌓이고쌓인 분노를 터쳐 도발자들을 씨도없이 징벌할 보복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남은것은 오직 하나 기다리고있는 최고사령부의 타격명령뿐이다.

도발자들은 무모한 선불질을 해댄 후과가 얼마나 처절한가에 대해 두고두고 통탄하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6월 26일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새 집 들 이 경 사

함 경 북 도 에 서

얼마전 함경북도에서 버섯공장종업원들의 살림집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새집들이가 있었다.

앞에는 옥련천이 흐르고 뒤에는 과수원이 펼쳐진 아담하고 경치좋은 이곳에 오붓하게 새로 들어앉은 살림집들은 살림방들과 전실, 부엌, 세면장, 실내위생실, 창고를 갖춘 공장종업원들을 위한 아담한 문화주택이다.

지난해 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도버섯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버섯공장건설을 힘있게 진행하면서 공장종업원들이 쓰고 살 수십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김광웅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시공조직을 짜고들어 새로 건설되는 살림집들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길주군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게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경원군과 온성군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벽체쌓기와 지붕공사에 이어 내외부미장을 와닥닥 다그쳐 끝낸 다음 색갈고운 외장재를 칠하였다.

다른 단위의 건설자들도 자기들이 맡은 살림집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결심을 안고 건설속도를 높여나갔다.

건설자들은 자기들이 건설한 집들마다에 문양고운 도배지를 바르고 지대정리와 울타리공사도 말끔히 끝내였다. 무산군과 경흥군, 연사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질좋은 가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훌륭한 살림집들에서 살게 된 공장종업원들은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당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은남

2면에서 계속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신송철 도인민위원회 사무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혜산청년광산 갱장 박철호,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혜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혜산농림대학 학생 리장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으며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 이 땅에서 전쟁위험은 날로 더욱 커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여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의 광업, 림업부문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림으로써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대홍단식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도의 이르는 곳마다 지대적특성에 맞는 비닐박막온실과 버섯재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혁명의 북소리, 진군의 나팔소리를 꽝꽝 울리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청년영웅, 최첨단돌파의 선구자가 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또다시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다면 군대와 인민은 원쑤들을 씨도없이 불마당질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반미시위들이 있었다.

시위참가자들은 미제와 괴뢰패당이 우리의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당장이라도 떨쳐일어나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굳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거리를 행진해나갔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명작창작에로 추동하는 고무적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한 우리 당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으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문학예술인들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데서 문학예술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맡고있다. 시대와 혁명은 문학예술이 혁명적진군의 앞장에서 벅찬 시대적흐름을 선도하고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바라고있다.

이 성스러운 력사적과제가 다름아닌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 문학예술인들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으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주고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짓부셔버리는 사상전의 맨 앞장에 서있다.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며 천만군민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중대한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문학예술인들이다.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을 더욱 철통같이 묶어세워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로 불러일으키자면 문학예술인들이 사상의 포문을 열고 명작창작의 포성을 드세차게 울려야 한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여기에 선군시대 문학예술인들의 사명과 본분이 있는것이다.

시대와 혁명발전을 고무추동하는 훌륭한 명작을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창작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문학예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문학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고무추동하는가 아니면 조국과 혁명, 시대의 부름을 외면하고 허송세월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사상적문제, 정치적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의 중대한 사명과 역할, 문학예술인들에 대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하시였으며 대회참가자들에게 현시기 문학예술부문에서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자!》, 이 전투적구호에는 선군시대 문학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으로 시대의 명작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여 당의 선군령도를 받드는데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명작폭포, 이는 문학예술부문에서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이 잠시도 중단없이, 일제히 터져나와야 할 명작창작의 드세차고 맹렬하며 줄기찬 포성을 의미한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킬수 있는 훌륭한 명작이 련이어 쏟아지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이 있으며 문학예술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는 문예인의 대부대가 있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투적구호에 담겨진 깊은 뜻을 명심하고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높은 창작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총서작품, 혁명소설창작에서 보다 큰 전진을

4.15문학창작단에서

4.15문학창작단에서 모란봉악단의 전투적이며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수령형상창조를 핵으로 하는 혁명문학건설에서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보다 새로운 전진을 안아오기 위한 창작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함께 구성과 양상이 새롭고 특색있는 혁명소설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합니다.》

4.15문학창작단의 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이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간적인 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모두가 떨쳐나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총서작품들과 혁명소설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전진을 안아오기 위해 창작적열정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창작지도일군들은 총서작품들에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어느 한 부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 당과 인민군대,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신 내용들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폭넓게 형상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창작방향을 매 작가들에게 제시해주고 창작지도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작가들속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간적인 풍모를 보다 폭넓게 형상하기 위해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모든 부문에서 절세위인들의 위인적인 인간상을 새롭게 발견하여 작품창작에 구현하려는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인적인 인간상을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킬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단면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현지지도단위들을 직접 편답하며 구체적인 혁명사적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한 고장에 깃들어있는 수십년간의 령도사적을 진지하게 탐구하기도 하면서 작가들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온넋을 쏟아붓고있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농민들속에 계셨던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한식솔의 가장으로 보다 친근하게 형상한 작품,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렬차강행군길에 계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을 그이의 체험세계에서 묘사한 작품창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또한 세계를 굽어보시며 최첨단돌파사상을 제시하시고 온 나라의 CNC화를 실현하시기 위해 한생을 불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도 심화되고있다.

작가들은 절세위인들의 인간적인 풍모를 보다 폭넓게 체득하고 새로운 생활적바탕에서 형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없던 구성형식과 전개방식으로 수령형상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데도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와 함께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언어표현을 작가의 개성과 장기대로 기발하게 찾아내여 쓰기 위한 사색과 노력도 활발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가슴뿌듯하게 느끼게 하는 혁명소설창작에서 고정격식화된 틀을 깨고 매 문장을 박력있게 구사하여 약동하는 느낌, 비약하는 시대의 숨결을 감수하게 하려는 혁신적인 창작시도들이 늘어나고있다.

모란봉악단의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따라배워 기어이 명작폭포를 안아오기 위한 4.15문학창작단 일군들과 작가들의 불같은 열정은 머지않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롭게 창작된 총서작품들과 혁명소설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자체의 수준을 한계단 높여

함경북도예술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대예술부문의 모든 예술단체들에서 자기의 얼굴과 개성을 가진 명작들을 새롭게 창작창조하여 참신하고 탄력있는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함경북도예술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명작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최선웅단장을 비롯한 예술단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창작가들의 실무수준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내주신 서한을 자자구구 깊이 새긴데 기초하여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해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갔다.

명작창작성과를 담보해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창작가들은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새롭고 혁신적이면서도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는 작품, 참신하고 전투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분과 초를 쪼개며 전투를 벌려나갔다. 창작가들은 새 작품창작과 함께 이미전에 형상되여나온 가요들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보다 더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로 재형상하기 위한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창작가들의 불같은 열정은 연주가들과 가수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온 예술단이 모란봉악단의 창작창조기풍으로 부글부글 끓게 되였다.

예술인들은 무대우에 나설 때마다 매번 새라새로운 모습을 펼쳐보이는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의 창조기풍, 투쟁기풍을 본받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면서 피로가 겹쌓였지만 지칠줄 모르는 정열로 매 종목들을 훌륭히 완성해나갔다.

예술단의 일군들은 집단의 앙양된 열의가 창작창조와 공연활동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극장무대는 물론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하여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높은 형상수준과 째인 안삼블로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그 나날 예술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열의가 비상히 높아졌으며 집단적경쟁열풍이 더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함경북도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오늘도 모란봉악단의 창작창조기풍을 따라배워 예술창조사업과 공연활동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지 혁 철

《만수대정신》이 창조된 곳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명작폭포를 안아오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만수대예술단을 찾았다.

만수대예술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유명한 녀성기악중주와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풍만한 성량을 가진 혼성합창을 먼저 생각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녀성기악중주조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을 진행한것은 지금으로부터 45년전인 주체58(1969)년 8월 15일이였다. 그때로부터 연주가들의 세대가 많이 바뀌였을것이라는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는 먼저 만수대예술단의 오랜 창작가, 예술인들을 만나보았다.

우리와 만난 연주가 장재옥동무는 《만수대정신》이 창조되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연주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우리 수령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한밤을 꼬박 지새우면서 기량훈련을 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공연을 보장하였다. 어버이수령님 한분밖에 모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충정의 세계에 매혹되여 열백밤을 패고도 힘든줄 모르던 우리들이다. …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를 떠나 만수대예술단의 훌륭한 전통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녀성기악중주조에서 오래동안 연주활동을 벌렸으며 《만수대정신》의 체험자, 증견자들인 오필배, 장재옥동무와 같은 예술인들을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불러주시였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념은 하나》,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비롯한 송가명작들을 훌륭히 형상하는데 이바지한 만수대예술단 고문 박영순동무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가요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예쁜이》를 비롯하여 훌륭한 명곡들을 많이 창작한 그는 전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의 바통을 새 세대들이 충직하게 이어가게 하는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라고 절절히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어 기량훈련에 열중하고있는 녀성합창단성원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만수대예술단 녀성합창단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무어주신 합창단이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우수한 독창가수들을 수많이 배출한 녀성합창단에는 전도유망한 신인가수들이 적지 않다.

지난 시기 녀성합창단은 화려한 극장무대에서만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화선식공연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녀성합창단 단장 리옥희동무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끝나는 길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 나가 경제선동활동과 현장공연을 기동적으로 진행하는데서 녀성합창단의 신인가수들이 그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녀성합창단이 앞으로도 시대의 명곡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리라는 남다른 기대를 안고 우리는 명곡창작으로 들끓는 작곡실을 찾았다. 국보적인 수령송가명작들을 수많이 창작형상한 만수대예술단의 훌륭한 창작전통은 오늘도 새 세대 작곡가들에 의하여 꿋꿋이 이어지고있었다.

김일성상계관인들인 실장 송광림, 작곡가 조일룡동무들은 지난 시기 《높이 들자 붉은기》,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와 같은 무게있는 명곡들을 창작한 관록있는 작곡가들이다.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새로운 수령송가창작에 정력을 다하고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학예술혁명의 기수가 되여 수령흠모의 노래, 어머니당에 대한 송가들을 대를 이어 힘차게 울려가고있는 만수대예술단 전체 성원들의 변함없는 충정의 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오늘의 시대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노래하고 받들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만수대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예술창조활동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 수 정

시대의 벅찬 숨결, 인민의 지향을 작품마다에

중앙미술창작사에서

중앙미술창작사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시대의 벅찬 숨결, 인민의 지향을 작품마다에 담기 위해 불꽃튀는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창작가들이 절세의 위인들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인민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미술작품들을 더 훌륭히 형상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창작가들은 어느 한 단위에 모실 절세위인들의 영상미술작품창작을 위한 전투를 벌리는것과 함께 시안의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 모실 영상미술작품창작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창작가들은 이와 함께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을 형상한 풍경화창작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공훈예술가 지승석동무를 비롯한 창작가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그로 하여 혜택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풍경화로 형상하기 위해 현지에 자주 나가 여러 각도에서 속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애썼다. 해비침조건을 고려하여 병원건물과 주위환경과의 조화가 잘 어울리면서도 색채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수 있는 시점을 포착하고 아름다운 화폭을 창조하기 위해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바쳐왔다.

조선화와 유화의 기법적특성을 잘 살려 이들이 최근에 창작하고있는 미술작품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밖에도 중앙미술창작사의 창작가들은 중앙동물원의 앵무관과 하마관 등을 조형화, 예술화하는 사업에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을 발휘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도록 매 동물관을 자연적인 느낌을 줄수 있게 꾸리자는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향이다.

바위와 나무, 풀잎 등을 방불하게 형상하기 위해 창작가들은 많은 초안들을 그려보고 서로 토의하면서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 성 근

미국의 가련한 어용나팔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국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오래전에 사멸된 정전감독기구의 존재를 거론해대며 우리를 함부로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6월 26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얼마전 중유럽나라들의 대표란자들이 서울에 쓸어들어와 그 무슨 《고위급정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무슨 리유로 이 무더운 날씨에 그리도 분주하게 돌아쳤는지 아무러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또 자기들의 체모에 맞지 않게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들며 고약한 언행을 일삼은데 대해서는 스쳐지낼수 없다.

저 멀리 유럽의 그 무슨 《4개국협의체》의 고위급정객이라고 자처하면서 기자회견을 벌려놓은 이자들은 느닷없이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거론해대기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조선경외로부터의 군사인원 및 무장장비의 반입과 증강을 감독통제할 사명을 띠고 조직되였던 정전감독기구가 형식상으로는 없어진듯 하지만 실지로는 여전히 존재하며 활동하고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러면서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것만 보아도 조선반도가 《심각한 화약고》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제나름대로 떠들어댔다.

청중들이 이미 사람들의 망각속에 파묻혀버린지 오랜 《중립국감독위원회》라는것을 들추어내며 론의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고 반문하자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이라고 대꾸하였다.

그들이 무엇때문에 정전감독기구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그 존재를 인정하려 했는가는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다.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인 긴장격화에서 벗어나자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수작으로 제 본심을 서슴없이 드러냈던것이다.

결만 다를뿐 내밷은 소리는 미국이 놀아대는 수작그대로였다.

이번에 우리를 걸고든 정객들은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조직된 이전 《중립국감독위원회》성원국의 인물들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고 자기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줴버린탓에 력사의 락엽속에 매몰되였다는것은 누구보다 그들이 먼저 잘 알고있다.

초보적인 주대도 없이 미국에 아부하며 이 기구를 조락시킨 장본인들이 20년이 훨씬 넘어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까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며 세상부끄러운줄 모르고 꼴불견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침략흉계에 편승하여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정전감독기구를 송두리채 파괴한 그들의 범죄적행위는 앞으로 반드시 결산되여야 할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의 반공화국나팔수들로 전락된 이자들의 가련한 몰골에 쓴웃음을 보내고있다.

동시에 6.25를 계기로 어중이떠중이들을 동원하여 정전감독기구의 부활놀음을 벌려놓아보려는 미국의 잔꾀를 날날이 꿰뚫어보고있다.

그 누구도 정의와 진리를 압도할수 없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에 팔리워 어용나팔수노릇을 하는 가련한 자들에게 점잖게 충고하고저 한다.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자기 존엄을 목숨처럼 간주하여야 하며 언제나 불의에 맞서 정의에 살아야 한다.

향방없이 불어대는 바람결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놀아대지 말아야 할것이다.

젊음으로 약동하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폭풍쳐 내달리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미국은 무덤속에 들어간 정전감독기구를 다시 되살려보려는 어리석은 기도를 애당초 버려야 한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지난 1950년 6.25가 미국의 운명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 감행한 대조선침략책동이 지금까지 어떤 후과를 초래했는가를 심중히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박두한 최후의 반미대결전에서는 정전이라는 말자체가 있을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의 립장이다.

미국과 추종자들은 이에 대해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

평양에서 첫 공연 진행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첫 공연이 2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렴철성 조선인민군 중장, 김형룡 조선인민군 상장, 한철 문화성 부상, 인민군군인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부, 무관부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앙군악단 예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중앙군악단 예술인들은 이번에도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다채로운 종목들을 성의껏 준비하여가지고왔다.

로씨야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인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이날 공연에서 로씨야민족예술의 면모와 인민들의 생활감정, 풍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취주악 가극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으로 시작되였다.

우리 나라 노래들인 《동지애의 노래》, 《매혹과 흠모》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백두의 천출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파시스트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을 수호한 붉은군대 군인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락천적인 모습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노래한 녀성독창 《푸른 수건》, 《까쮸샤》는 출연자의 개성적이며 열정적인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녀성독창 가극 《쟌니 스끼끼》중에서 《라우레따의 아리아》, 색스폰독주 《챠르다쉬》, 트롬본독주 《검은 눈동자》, 남성독창 《먼길》 등의 종목들은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관중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과 함께 강화발전시키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굳건히 이어지고있는 조로친선관계의 공고성과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두터운 우의의 정을 다시금 뜨겁게 느끼였다.

출연자들은 발랄라이까독주 《행상인들》, 남성독창 로씨니작곡 가극 《세빌랴의 리발사》중에서 《휘가로의 아리아》 등의 작품들을 특색있는 연주기법과 풍만한 성량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로씨야련방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 왈레리 할릴로브가 작곡한 취주악 《친선원무곡》으로 절정을 이룬 중앙군악단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은 계속된다.

이날 저녁 인민무력부에서는 로씨야련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5차회의 진행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5차회의가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전체회의와 단장접촉으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립장을 밝히고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황성학 고베조선고급학교 교장, 조명호 교또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장말려, 김태호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6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북침핵전쟁도발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자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는 전쟁의 화근

많은것이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것, 잊을수 없는것이 있다. 6.25, 그 참혹한 전쟁이 남긴 가슴아픈 추억은 이 땅에 사는 그 누구에게나 아물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 단잠에 들어있는 이 나라 선량한 사람들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불세례가 들씌워진 그 6월의 일요일, 인류력사상 가장 가렬처절하였던 전쟁의 그 3년간을 우리 겨레가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발한 침략전쟁이였으며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전쟁이였다. 그 나날 침략자들의 폭격과 포격에 무너지고 불타던 거리와 마을들의 참담한 정경과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에 의해 피흘리며 쓰러지던 혈육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서는 창조의 마치소리높이 새 생활이 약동하던 조국강토를 우리 인민의 피로 물들이고 오늘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보복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미제는 참혹한 전쟁의 강요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이다.

우리 겨레는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았다.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설음많고 기나긴 식민지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슴을 펴고 살아보자며 새 삶의 대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던 꿈많은 민족이였다. 하지만 월가의 전쟁상인들에게는 애당초 조선민족의 생명과 생활, 리상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유라시아대륙침략의 출구이고 발판이며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라는 비게덩어리를 제 손아귀에 거머쥐려는 피에 주린 탐욕만이 있었다. 그래서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언제 한번 남을 침략해본적이 없는 선량한 우리 겨레에게 그토록 파괴적이고 처참한 전쟁의 재난을 강요하였던것이다.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의 야만적인 대학살범죄는 오늘도 인류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인류력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쑈도당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만행으로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야수들은 조선전쟁에서 야만성, 잔인성, 포악성에 있어서 히틀러파쑈도배를 훨씬 릉가하였다. 조선전쟁은 불과 3년동안에 19세기의 100년간에 인류가 전쟁으로 낸 사상자수와 거의 맞먹는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대미문의 참혹한 전쟁이였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던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으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미제의 죄악은 영원히 용서받을수 없다.

미제는 우리 겨레에게 끊임없는 전쟁의 재난을 강요하는 원흉이며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진범인이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것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지고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새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불법반입하여 그곳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었으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핵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오고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획책하여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제는 저들이 《원자탄을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조선전쟁에서 참패》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며 제2의 조선전쟁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핵전쟁각본들을 작성해놓고 그에 따른 핵무력반입과 군사연습에 광분하여왔다. 그 강도는 해마다 더욱 높아져 지금 최절정에 이르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이 해마다 벌려놓고있는 이런 광란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소동은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 몰아넣고있다. 조선반도가 세계최대의 핵전쟁발원지라는것이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전세계가 닥쳐올 열핵전쟁의 참화에 극도의 불안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어제는 미제가 미친듯이 쏟아붓는 총폭탄에 의해 평화를 빼앗겼다면 오늘은 끊임없는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소동으로 인해 평화를 엄중히 유린당하고있다. 미제야말로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이고 현대의 야만이며 악의 무리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민족반역의 무리 남조선괴뢰패당도 민족안에 살려둘수 없는 특등재앙거리이다.

제 나라, 제 민족도 모르고 겨레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전쟁불사》를 부르짖으며 화약을 안고 불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도 서슴지 않는 괴뢰패당이야말로 미국의 특등전쟁하수인, 핵전쟁공범자이다. 미국상전과 함께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발광하고있는 이런 전쟁광신자들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있겠는가. 미제와 그 주구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핵참화를 피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평화의 원쑤, 통일의 원쑤들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만장약되여있는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적들이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덤벼든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민족의 최대숙원을 풀 철석의 의지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것이다.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잃을것은 저주로운 분렬의 장벽뿐이고 우리가 버릴것은 사대와 매국으로 민족을 망신시키는 역적들뿐이다.

미제가 강요한 원한의 6.25로 목숨을 잃은 수백만 령혼들의 복수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우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만이 열리고 후대들에게 끝없이 아름다운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는 선군의 보검을 더 억세게 추켜들고 싸워나갈것이다.

허 영 민

반전평화수호는 정의의 애국투쟁

◇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의지로 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전도를 귀중히 여기는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적극 련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각종 명목의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그에 장애를 조성하는 온갖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철저히 배격하며 특히 각종 명목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거족적인 반전평화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터치는 이 목소리들에는 견결한 반전평화수호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반전평화투쟁이 우리 민족의 사활적과제이기때문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제가 강요한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었고 그후 60여년간이나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오고있는 우리 겨레는 누구나 전쟁을 견결히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고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가 사는 그 어디서나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다.

◇ 반전평화투쟁은 겨레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전체 조선민족이 핵재난을 들쓰게 되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그렇게 되면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민족이 있고 강토가 있고서야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데 민족의 안전도 통일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이 달려있다. 반전평화투쟁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이다. 평화를 바라는것도 우리 민족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 온 민족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총궐기하여야 한다.

북침을 위한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의해 제2의 조선전쟁은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고있다.

온 민족은 거족적투쟁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된매를 안기고 이 땅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쟁의 근원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내며 미군기지들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벌려나가야 한다.

외세를 등에 업고 새 전쟁도발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괴뢰집권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을 준렬히 단죄배격하여야 한다. 반전평화공조로 굳게 단합된 우리 민족의 힘을 그 어떤 침략전쟁세력도 당해내지 못한다.

선군정치는 반전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이다. 온 겨레가 선군정치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갈 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모든 재난과 참사를 몰아오는 천하 재앙거리를 더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근혜의 비호밑에 무제한한 전횡을 일삼고있는 《유신》잔당 김기춘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여 26일 보도 제106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 괴뢰국무총리로 내정되였던 극악한 매국노 문창극놈이 민심과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 의해 끝내 사퇴하였다.

문창극의 사퇴는 극악한 친일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신자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이며 준엄한 경고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문창극뿐아니라 이번 인사참사의 주범이며 골수 《유신》잔당, 현 박근혜 《정권》을 움직이는 《7인회》 두목으로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무제한한 전횡을 일삼고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때 공안검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면서 《유신헌법》 작성에 직접 가담한 《유신》 독재자의 심복중의 심복이고 재일동포간첩단사건을 비롯한 각종 간첩단사건을 날조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반파쑈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파쑈광이다.

그는 박근혜에 의해 지난해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앉은 후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리울 정도로 청와대의 실제적인 제왕으로 행세하면서 《유신》 독재부활과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였으며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자리까지 타고앉아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들에 전부 자기의 구미에 맞는자들을 들여앉혔다.

이번에 극악한 친일매국노 문창극놈을 괴뢰국무총리로 내정하도록 한것도 바로 김기춘이다. 그는 자기가 《박정희기념재단》 리사장으로 있을 때 리사로 데리고 일하던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며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놈을 비호두둔하였다.

지난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인사교체때 제 족속들을 올려앉혀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김기춘이다.

김기춘놈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헐뜯고 북남협력사업을 《퍼주기》로 모독하며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극악한 반통일대결광신자이다.

오늘 북남관계가 심각한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는것은 김기춘과 같은 악당이 청와대의 중추에 들어박혀 《대북정책》을 좌우지하면서 반통일극우보수세력의 반공화국모략대결광란을 총괄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고있는데 있다.

이런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재앙에서 벗어날수 없고 북남관계의 파탄을 피할수 없다.

남조선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이 《현이은 인사참극의 주범》, 《불통과 독주의 상징》으로 규탄하면서 김기춘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권층안에서까지 《김기춘책임론》, 《경질론》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특히 문창극의 사퇴로 인한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이미 두달전에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홍원을 괴뢰국무총리로 류임시킨것과 관련하여 민심은 더욱 거세차게 폭발하고있다.

언론들과 정세전문가들은 박근혜가 김기춘을 계속 끼고돌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박근혜는 민심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자신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분노가 청와대에 더욱 들씌워지게 될것이며 결국 그로 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유신》시대의 늙다리산송장 김기춘은 제명을 다 살았으며 이제 갈 곳은 무덤밖에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구시대의 《유신》잔당이 아직 살아남아 청와대의 제왕노릇을 하면서 온갖 재난과 참사를 다 불러오는 천하의 재앙거리 김기춘을 더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제2의 6.25를 불러오는 역적무리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릴지 모르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등 각이한 류형의 전쟁각본들을 작성하고 그것을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통해 숙달, 완성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라 그 누구의 《군사적위협》류형을 《재래식전면전위협》, 《국지도발위협》, 《비대칭위협》, 《우주 및 싸이버위협》의 4가지로 확정하고 미국과 각 류형별 《억제전략》들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그것을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고의적으로 무장충돌을 일으켜 《국지전》 상황을 조성하고 그것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하려는 무모한 계획도 짜놓았다. 괴뢰들은 이미 미국이 북남사이의 《국지전》에도 개입한다는데 대해 모의하였다. 미제침략군의 《국지전》 개입은 곧 전면전쟁을 의미한다.

괴뢰패당은 동족을 겨냥한 미국의 침략적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극력 비호두둔하고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해서는 《위협》이니 뭐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그 무슨 《선제타격》과 《군사적대응》, 《대북심리전》 재개를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북침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핵무기사용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가하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미싸일타격체계의 구축을 다그치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걸고들며 그것을 구실로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며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맞춤형억제전략》의 실현으로 북침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이 괴뢰패당의 기본전략으로 되고있다.

외세의 힘을 빌어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박근혜패당의 책동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집권자는 미국상전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그의 서울행각에 대하여 그 무슨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쎄지》니 뭐니 하고 국구 피여올리였는가 하면 다음해말로 예정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또한 미싸일방어체계구축과 미국과의 고위급안보대화강화, 《북핵대응》을 위한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모의하였다.

이러한 속에 김관진역도를 비롯한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저들단독으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를 《멸망》시킬수 있다고 고아대면서 자나깨나 《북과 대적할 생각뿐》이라고 기염을 토하는가 하면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 타격》 폭언을 줴치며 로골적으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최근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부추김을 받고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에 적극 나서고있는것도, 《북핵 및 미싸일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THAAD》의 남조선배비가 필수적인것처럼 소란을 피우고있는것도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침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우리측 해안에로의 침투훈련을 골자로 하는 도발적인 《호국》 훈련,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선제타격을 노린 대규모의 《맥스 썬더》 훈련 등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미핵항공모함을 조선동해와 남해, 서해에 련이어 끌어들여 극히 위험천만한 해상합동군사연습의 조성을 요란히 터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제2의 6.25 참화를 피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동족대결에 미쳐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앙을 들씌우게 될 제2의 6.25를 몰아오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북침을 노린 해상종합기동훈련에 광분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제23차대회 진행

【도쿄 6월 25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제23차대회가 22일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김차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3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과 조국의 여러 단위들 그리고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소년단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김차돌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22기사업기간 조청을 충정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고 조국사랑, 동포사랑, 미래사랑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동맹원들이 애족애국운동의 주인이 되여 적극 활동하여왔다고 말하였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결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청을 총련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애족애국운동을 새 세대를 중심으로 전환할데 대한 요구에 맞게 광범한 동포청년학생들을 더 많이 찾아내고 참신한 대중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기여하는 운동과 대외활동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활발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다음해에 맞게 되는 총련과 조청결성 60돐 기념행사 준비를 다그쳐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총련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애족애국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감으로써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는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청춘의 열기로 앞당겨 안아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일본청년단체인사들의 련대발언과 각급 조청조직일군들의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주대의원이 새로 선출되였다.

남승우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애국 1세, 2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처럼 조청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모시고 그이의 위대성을 가슴에 깊이 새긴것은 22기기간에 얻은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라고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심장으로 받들고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애족애국운동에서 조청이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학교졸업생들을 빠짐없이 조청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일본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청년학생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폭넓은 조직망, 련계망을 형성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조청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청년운동을 새 전성기에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활력있고 약동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23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다.

미제와 함께 부로 날뛰지 말라 박근혜역적무리는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4일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괴뢰패당의 범죄적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제가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평화로운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고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들씌운 때로부터 6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해 도발한 침략전쟁이였고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살전쟁이였다고 단죄하였다.

지금도 침략자들의 폭격과 포격에 무너지고 불타던 거리와 마을들의 참담한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안겨오고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에 의해 피흘리며 쓰러지던 우리 부모형제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밝혔다.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지난 조선전쟁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고 규탄하였다.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전쟁하수인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내맡기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은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노라고 락인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미제의 침략적야망은 조선전쟁을 도발했던 64년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들과 함께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과 매국역적 박근혜괴뢰패당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반미, 반전평화수호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살인귀 미제와 피의 결산을

세월은 마음속상처를 가셔준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여섯번이나 지났지만 우리 인민의 가슴속원한의 상처는 아물줄 모른다.

미제가 전쟁 3년간 이 땅에서 감행한 살인만행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여 자다가도 깨여나 이를 갈군 한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 땅에 원한의 피를 뿌렸던가.

신천군 어느 한 면에서 학살되였다는 어린이들의 마지막울부짖음이 지금도 나의 귀전에 울려오는듯 하다. 5살도 안된 수십명의 어린이들을 어머니품에서 강제로 떼여낸 미제살인귀들은 까마득한 절벽우에서 그들을 돌덩이처럼 내던져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나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묻고싶다.

아직은 엄마품에서 응석만 부릴 이 어린것들에게 과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 애들이 절벽우에서 떨어지면서 《엄마》하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 손이 떨리지 않던가.

미제승냥이에게는 말보다도 피의 결산, 천백배의 복수만이 있을뿐이다.

미제는 대를 두고 피의 결산을 받아내야 할 복수의 파녁이다. 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의 피의 절규를 언제나 잊지 않고 후대들을 복수자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겠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
교원 홍 춘 애

‖전쟁연습중지, 평화협상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전쟁범죄를 감행한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것이다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판가리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미국이 아직도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우리에게 된매를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하고있다. 미군부와 정계의 고위인물들은 기회만 있으면 입을 모아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을 걸고들며 그것이 동맹국들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느니, 우리의 《도발》로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해있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줴쳐대고있다. 미국의 보수언론계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때문에 미국본토도 《불안》과 《위협》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명백히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에 가해지고있으며 도발자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이것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를 헐뜯는것은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데로 돌리고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력사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켜온 위협의 가해자,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지난 세기 중엽에 벌써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동북아시아에로 진출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목적밑에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끊임없는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패전략을 로골적으로 추구한 미제는 그 실현을 위해 조선전쟁을 포함한 세계대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작성완성하였다. 미국은 여기에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조직된 《력사반》과 《카토》기관, 《G—2》, 《G—3》과 같은 첩보공작 및 작전연구전문기관들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조선과 만주, 씨비리를 점령할것을 예견한 《A, B, C계획》을 연구작성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이 작성한 《A》계획과 관련한 《북벌》군사행동계획은 우선 38° 선에 남조선괴뢰군, 미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동부와 서부의 2개 작전지대를 만든다는것, 전선서부는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고 전선동부는 좌익은 양덕, 우익은 원산을 향해 진격한다는 것 등으로 되여있었다.

미국은 이 작전계획을 그대로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고 그 방안대로 전쟁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미국은 작전계획작성과 함께 38° 선에 공격형의 무력을 집결시키고 남조선괴뢰들을 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을 일삼았다. 표면상으로는 남조선괴뢰군이였지만 그 직접적인 조직자, 지휘자는 미국이였다.

1949년 10월 괴뢰륙군 사단장회의에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가 《38° 선이북지역에 대한 많은 공격은 나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격이 수행될것이다. 남조선군의 진공은 오직 미군사고문단의 명령에 의하여서만 수행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1950년에 들어와 조선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미국은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북침전쟁도발준비상태를 현지에서 검열, 확정하고 전쟁개시명령을 하달하기 위하여 미국방장관 죤슨,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를 도쿄에 있는 맥아더사령부에로, 미국무성 고문 덜레스를 자기의 특사로 남조선에 파견하였다. 덜레스의 서울행각은 공격개시신호를 주고 이와 함께 미해공군이 지원한다는것을 최고위급에서 리승만에게 담보해주기 위한것이였다.

남조선에 날아든 덜레스는 현지에서 직접 전쟁준비를 확정하고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최종적으로 비준한 전쟁비밀지령을 남조선괴뢰군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괴뢰군은 미군사고문들의 지휘밑에 6월 25일 새벽 4시 38° 선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것은 헤아릴수 없는 커다란 불행과 고통,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전후에도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과 도발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왔다.

미국은 1954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켰으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는 등 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길로 나갔다.

우리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수많은 평화제안들과 발기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그것을 모조리 거부하였다.

미국은 오직 우리를 힘으로 삼키려는 야망만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을 일삼으며 체계적으로, 계통적으로 정세를 긴장시켜왔다. 더우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그 기간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여 극동최대의 핵화약고, 핵전초기지로 만들었다.

미국은 핵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을 짜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조선정전협정체결직후인 1953년 8월 중순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량의 원자탄을 공중투하하는 《작전계획 8—53》을 짜놓았다. 1954년 미국무성과 국방성, 미합동참모본부, 미중앙정보국, 미륙해공군 우두머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전략회의에서는 조선반도《유사시》 원자탄공격을 예견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1969년에도 우리에 대한 핵공격과 그 피해까지 예상한 《프리덤 드롭》이라는 비상계획을 짜놓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지나간 력사로만 남아있는것이 아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명단에 올려놓았다. 《유사시》 우리를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것을 명문화한 전쟁문서까지 짜놓았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우리를 적으로 겨냥한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일단 《유사시》 공화국을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완성해놓고 그에 따르는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여기에는 언제나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되군 하였다. 핵을 동원한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는 때없이 전쟁접경으로 치닫군 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가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은 위험에 처하고 우리 인민은 항시적으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받으며 늘 긴장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오늘도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를 먹어보려고 기회를 노리며 침략의 칼을 벼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도발의 도수는 위험단계를 넘어서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완화기운이 감돌고있었지만 미국은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고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였다. 지어 무모하게도 1993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이 참가하여 《평양점령》을 기본목표로 삼은 상륙훈련도 감행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야망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직 우리를 교전일방으로, 적으로 삼고 힘으로 제압하겠다는것이다.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나 평화협정체결이 아니라 전쟁만을 바라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격화시키면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랜 기간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와 판가리결산을 하고야말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만일 미국이 끝끝내 새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의 자비심도 없이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리 학 남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외국인들 격분 표시

신천박물관을 참관한 외국의 벗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침략과 략탈의 원흉, 극악한 인간도살자로서의 악명을 떨친 미제의 피비린 죄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 마르씨아 데 깜뽀스 뻬레이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저지른 미제의 살인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인간의 너울을 쓴 승냥이무리들만이 할수 있는 이 대학살만행은 천추에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의 죄악이다.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전쟁의 참화도 모자라 미제는 장장 반세기이상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조선의 절반땅을 가로타고앉아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불안을 조성하면서 조선인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주고있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이 경제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입은 피해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이 땅우에 불행의 씨앗만을 묻고 키워온 평화의 암이다.

수십년전 국제민주녀성련맹 조사단은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였다.

세계의 모든 녀성들은 이 력사의 땅 신천에 와서 미제의 치떨리는 인간살륙만행을 똑바로 보고 반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미제의 야수성과 악랄성을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

스위스조선위원회대표단 성원 페터 헤디게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신천박물관을 참관할 때마다 미군이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들에 대해 격분을 금할수 없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는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많은 녀성들과 아이들을 무참히 죽인것이다.

미제의 집단살인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것이였다.

웰남녀성동맹대표단 단장 황 티 아이 니엔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미제의 야만적행위는 신천땅의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수 있다.

이곳에 전시된 미제의 만행자료들은 력사에 파묻힐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 피비린 죄악의 증견물이다. 화약창고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있는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따로따로 갈라놓고 무참히 학살한것은 미제의 야수성의 극치이다.

이러한 인간도살은 비단 신천땅뿐아니라 침략자 미군의 피묻은 군화발이 찍히는 곳마다에서 수없이 감행되였다.

조선은 이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자의 피할수 없는 운명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그 무슨 《승전》을 기념하는 광대극들을 대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지난해를 놓고보자. 미국회에서는 《조선전쟁 참전용사의 해》를 지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였다. 미국방성 청사에서는 《조선전쟁기념전시관》이라는것이 문을 열었다. 그런가하면 미호전계층은 흔히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우는 조선전쟁을 이제는 《잊혀진 승리》로 다시 정립할 때가 왔다고 떠들었다.

묻건대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을 하였다고 비명을 지르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던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저들이 당한 참패가 너무도 망신스러워 입밖에 내기조차 저어하던 미국이 이제 와서 패배를 《승리》로 둔갑시키고 《기념행사》놀음을 벌린다고 하여 조선전쟁의 진상이 달라질수 없다.

◇정의의 싸움에 일떠선 인민은 승리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정의의 전쟁에 궐기한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64년전 미제가 이 땅에 강요한 전쟁은 침략과 반침략, 전쟁세력과 평화애호력량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동적공세로부터 정의를 고수하기 위한 준엄한 수호전이였다. 당시 미제는 거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긁어모아 조선전선에 투입하였고 전쟁사에서 인류가 알지 못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허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22만㎢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반도에서 200여만명에 달하는 다국적인 호전광무리가, 100차례가 훨씬 넘는 전쟁들에서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던 미제가 3년동안의 전쟁에서 일찌기 체험해본적이 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당시 미국방장관이였던 마샬은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렇다. 조선전쟁에서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휴지통에 구겨박혔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수십년간 총포성없는 치렬한 조미대결전에서 미국은 언제나 패자의 수치를 면치 못하였다. 력사는 아무리 포악하고 강대한 적이라고 해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투쟁하는 인민을 당할수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편에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제2의 조선전쟁은 미제에게 종국적파멸을 가져다줄것이다.

승냥이는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한다고 미제는 언제 한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기도를 버린적이 없다. 최근 몇달사이에만도 미제가 《독수리》,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 등을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불구름을 어떻게 몰아왔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나라는 국제무대에 평화와 번영을 애원하고 구걸하던 어제날의 약소국가가 아니다.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원쑤들에 대해서는 행성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려는 멸적의 의지로 충만되여있는것이 우리 무장력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서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감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침략군이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을 타격할것이며 지구상에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들어내고야말것이다.

조선전쟁도발자, 침략의 원흉

국제사회계의 규탄의 목소리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들씌웠다.

미제는 전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던 끝에 1950년 6월 25일 괴뢰들을 사촉하여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조선전쟁기간 미제침략자들은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야수적인 폭격만행으로 수많은 조선의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기간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만행들은 야만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조선민족이 왜 미제를 불구대천의 원쑤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고있는가를 똑바로 알게 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전쟁이 있은지 6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 장구한 나날 미국은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을 외곡해왔다. 다시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조선을 〈침략〉함으로써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것이다.

하다면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은 어떠한가?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조선전쟁이 일어나게 한 요인이였다.》

홈페지는 또한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을 음흉한 목적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한 사실들을 렬거하였다.

홈페지는 《조선전쟁의 교훈: 미국의 힘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명백히 힘의 불균형상태가 조성되여있었다. 미국에 맞선다는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그처럼 〈강대성〉을 과시하던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일떠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할수 없었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힘의 신화가 여지없이 부서진 력사적사변이였다.》

홈페지는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입은 손실을 수자적으로 폭로하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오늘날 조선은 자기를 건드리는자는 행성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징벌할수 있는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미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조선전쟁도발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울수 없으며 우리 인민에게 끼친 모든 죄악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본사기자 리 철 혁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이렇게 깨여졌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개시 73돐 기념

로씨야에서 22일 위대한 조국전쟁개시 73돐에 즈음한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울라지미르 뿌찐대통령이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대통령행정부 및 정부성원들, 국가회의 대의원들, 군지휘관들, 전쟁로병들,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층 시민들이 화환진정식에 참가하였다.

이날 싼크뜨-뻬쩨르부르그, 볼고그라드, 꾸르스크, 오룔 등 전국각지에서 무명전사묘와 전승기념비들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는 의식들이 있었다.

격화되는 군사적대결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최근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군사적대결이 격화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관계는 보다 긴장되고 악화되고있다.

미국주도하의 나토는 로씨야와 가까운 동유럽과 주변해상수역에 무력을 증강하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루이지아나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2대를 영국으로 이동시켰으며 뽈스까에 600명의 미군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오바마가 동유럽에 주둔해있는 미군을 증강하기 위해 10억US$의 자금을 추가지출할데 대한 안을 미국회에 제출한 직후 강행되였다. 프랑스는 공중조기경보관제기 1대를 뽈스까와 로므니아상공을 감시하는 나토항공무력에 소속시켰다. 미국과 네데를란드는 공중급유기를 파견하였고 뛰르끼예도 곧 급유기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얼마전 나토사무총장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사태로 변화된 유럽안보지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투준비행동계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나토는 7월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토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련합작전능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토군은 이미 지난 5월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이달에는 발뜨해와 주변지역에서 《발뜨옵스-2014》 해상군사훈련과 《쎄이버 스트라이크-2014》 합동군사연습을 단행하였다. 미국주도하에 벌어지는 이번 해상군사훈련에는 13개 나라의 방대한 병력이, 나토합동군사연습에는 10개 나라에서 4 000여명의 병력과 800여대의 땅크가 참가하였다.

나토군사령부는 처음으로 이번 군사훈련이 로씨야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로씨야는 자국주변에서 벌어지는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강하게 대응하고있다.

로씨야외무상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인위적인 확대와 로씨야 편방 가까운 지역에서의 군사하부구조강화는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는 서부국경지역에서 감행되는 나토의 대규모군사연습에 대응하여 지난 9일 깔리닌그라드주에서 로씨야 발뜨함대와 공군, 항공륙전대가 참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12일에는 로씨야의 서부군관구 제1공군 및 반항공방위사령부소속 《Cy-34》전투폭격기대대가 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발뜨함대군용비행장에 이동전개되였다.

이번에 진행된 군사연습에는 《Cy-34》전투폭격기외에 《Cy-24MP》정찰기, 《Cy-27》추격기, 《Ty-22M3》장거리폭격기, 《A-50》지휘기가 동원되였다고 한다.

로씨야의 이번 군사연습은 유럽에서 진행되는 나토의 군사연습 《쎄이버 스트라이크-2014》, 《발뜨옵스-2014》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군인 및 무장장비수는 나토군사연습에 참가한 군인 및 무장장비수와 대등하다.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한 로씨야의 우려와 군사적대응은 공연한것이 아니다.

나토는 기구확대를 통하여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부단히 압축하고있다.

1990년 10월에 동도이췰란드가 서도이췰란드에 흡수되면서 나토의 품에 들어간것으로부터 시작된 동쪽에로의 나토확대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1999년에 체스꼬와 마쟈르, 뽈스까가, 2004년에는 벌가리아, 에스또니야, 라뜨비야, 리뜨바, 로므니아, 슬로벤스꼬, 슬로베니아가,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흐르바쯔까가 나토의 성원국으로 되였다. 현재 끼쁘로스와 마께도니아가 나토가입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놓은 상태이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 한해서도 나토는 자기 기구에 받아들일수 있다는 약속을 해놓았다.

미국이 겉으로는 로씨야와의 《동반자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 로씨야를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포위하고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연습들을 벌리고있는것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나토가 노리는 가장 큰 목적은 로씨야를 전략적으로 압축하여 더는 대국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사태를 놓고 그것을 로씨야를 견제하기 위한 주패장으로 틀어쥐고 정치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압력을 강화하고있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로씨야가 이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가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최근 프랑스대중보도수단들과의 회견에서 미행정부가 로씨야의 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서방나라들에 대한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리용하여 이 나라들이 로씨야를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세계에서 로씨야를 포위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우며 가상적으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조소하였다.

로씨야는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략무력을 강화하고 합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과 유라시아경제동맹을 창설하고 중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로씨야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과정은 사실상 유럽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라 긴장격화만을 초래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김 철 룡

제64차 국제축구련맹총회 진행

제64차 국제축구련맹총회가 최근 브라질의 싼 빠울로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나라들사이의 평화와 존중, 단결을 추동하는데서 축구의 역할을 높일데 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국제축구련맹 위원장 블라떼르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팀들에 한해서 점수를 삭감하거나 추방 및 강급시키는 조치들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였다.

총회는 2015-2018년 예산안과 녀자축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안한 10가지 주요발전원칙들을 승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당국의 부당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책동을 반대하여 집회

ㄱ-4109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